



신석기 유물 매장지 훼손... 국가유산청 감사 청구

도 감사위 조사 착수 3년 전 표본 조사 없이 997㎡ 개발
표면면 담당 공무원 고지 절차 누락한 채 건축 허가 승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 대거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내 유물 산포지(매장유물 유존지역)가 3년 전 무참히 훼손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감사 청구에 따라 성읍리 유물산포지에서 무단 공사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성읍리 유물산포지는 신석기 시대에 생활했던 마을이 있던 곳으로, 지난 2005년 발굴 조사에서 신석기 후기 단계에 출현하는 다양한 유물(무늬가 있는 토기)과 갈판, 숯 등 석기 등이 출토됐다. 성읍리 유물산포지는 도내에서 유물 분포 범위가 가장 넓어 총 6개 지구로 나

니다. 이중 무단 훼손된 곳은 1지구로 6개 중 신석기 시대 유물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1지구 전체 면적은 54여만㎡에 달한다.

무단 훼손 정황은 올해 6월 포착됐다. 도 세계유산본부(이하 본부)는 1 지구에 개인 땅을 소유한 A씨가 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표본 조사를 하지 않고 창고 증축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물 유존지역에서 4000㎡ 이상 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과 협의할, 그 이하 면적을 개발하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A씨의 공사 예정 면적은 4000㎡ 미만으로 표면면은 서귀포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표본 조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증축을 허락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본부 측은 A씨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증축 공사가 시행된 부지는 이미 3년 전 무단 훼손돼 애초부터 유물 표본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단 훼손 면적은 997㎡로, 3년 전 성도(흙을 쌓아 부지를 평평하게 하는 것)와 콘크리트 타설, 창고 신축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3년 전 문제의 공사는 B씨가 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해 창고 증축 공사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표본 조사 없이 공사를 했지만 이들에겐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A씨는 표본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형질이 변경된 땅을 매입해 공사를 한 것이고, B씨는 표면면으로부터 표본 조사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민기자

취재 결과 B씨가 한 문제의 공사도 협의 결과에 따른 표본 조사 이행 대상이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B씨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2021년 4월 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유물산포지는 주변 땅 높이를 고려할 때 1m가량 성토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콘크리트로 뒤덮인 상태라 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굴착도 어려운 상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 콘크리트를 파내는 공사가 예정될 경우 표본 조사를 미리 이행하라고 통보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고지 절차를 누락했는지 그 경위를 따지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 의뢰 대상인지, 징계 요구로 끝날 사안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5년간 태풍 14개 제주 통과·선박 45척 사고 해경, 2024년 태풍 내습기 해양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제주에서는 최근 5년간 태풍 내습 기간 중 총 45척의 선박이 해양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 여름·가을철 태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4년 태풍 내습기 해양 사고 예방·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를 통과한 태풍은 총 14개로 선박 45척이 사고를 당했다.

2019년에는 태풍 ‘다나스’, ‘링링’, ‘타파’로 선박 21척이 사고를 당했으며, 2020년에는 ‘마이삭’으로 17척이, 2021년에는 ‘오마이’, ‘잔투’로 3척이 피해를 입었다. 또 2022년에는 ‘힌남노’로 4척이 전복됐다.

이처럼 태풍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오는 10월까지 원거리 조업선 조기피항 및 모니터링 등 각종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중 또는 해제 직후 아직 파고가 높음에도 이동자제 권고를 무시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주해역 통항 선박 안전관리 및 집중 관제, 항내 계류 선박·연안위험구역 안전관리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박상준 제주해경청장은 “인명사고 제로화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양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5·16 뺑소니범 음주 시인... 혐의 적용 어려워

A씨 경찰에 “소주 4~5잔 마셨다” 취지 진술

14시간 뒤 긴급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초치), 자동차손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사고 발생하기 6시간 전쯤 소주 4~5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차량을 낚은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도주했다가 약 14시간 뒤 사고 현장에서부터 10여km 떨어진 제주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상태를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경찰은 사고 후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혈액을 채취해 음주와 마약 등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역추산할 최소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와 버스 등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변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현기자

독자 제보 750-2232

통장 명의 빌리고 폭행·갈취 경찰, 20대 등 일당 3명 구속

지인들을 협박해 2000여 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동창 등 지인 2명을 상대로 총 22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번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빌렸다.

이들은 피해자 B씨가 해당 통장에 입금된 돈 700여 만원을 써버리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으며, 이후 B씨가 돈을 갠음에도 합의금 등을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돈 입금을 요구하며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초 이들을 구속했다. 김재현기자



무더위 속 김매기 다시 무더운 날씨를 보인 17일 서귀포시 표면면 성읍리 한 농경지에서 어르신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성폭력 피해자 의료·법률 서비스 무료 지원 도, 해바라기센터 통해 원스톱 전문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리,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제라진 심리·의료·법률 분야 전문가 서비스’ (이하 제라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통합형 시설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앞서 제주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제주해바라기센터와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심리지원 74명, 변호사 상담 58명, 불법촬영 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17명,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 4명 등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 궁전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성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팜삭 / 세미늘 / 금귤 / 당우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현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물상상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주) | 054-652-3725 |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